

結婚滿足度尺度의 妥當化 研究

-Roach, Frazier, Bowden 의 Marital Satisfaction Scale -

An Assessment of the Validity of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Mss of Roach, Frazier, Bowden -

慶熙大學校 文理科大學 家庭管理學科

研究助教 : 李 寅 洙

*Dept. of Home Management College of Liberal
Arts & Sciences Kyung Hee University
Research Assistant : In Soo Lee*

慶熙大學校 文理科大學 家庭管理學科

副教授 : 劉 永 珠

*Dept. of Home Management College of Liberal
Arts & Sciences Kyung Hee University
Associated Professor : Young Ju Yoo*

目 次

I. 序 論

1. 問題의 提起
2. 研究目的

II. 理論的 背景 및 先行研究의 考察

1. 結婚滿足度 概念
2. 結婚滿足度 尺度
3. 結婚滿足度尺度(MSS)의 개관
4. 結婚滿足度尺度(MSS)의 妥當化 檢證節次

III. 研究方法

1. 研究對象

2. 道 具

3. 節 次
4. 資料分析

IV. 結果 및 論議

1. 問項 分析
2. 要因 分析
3. 信賴度 分析
4. 背景要因에 따른 結婚滿足度의 變量分析

V.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M.S.S.) is properly applicable to Korean couples and further to be devoted to the design of a marital satisfaction scale for Korea.

The scale employed in this study was a Korean adaptation of the M.S.S., which originally included 73 items but was reduced to 48 through a study of its

validity by Bowden. This scale was administered to 420 couples. One kindergarten, two elementary schools, one middle school, and four high schools, all of them located in Seoul or its satellite cities were selected for the present study.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Through item analysis, 85.4% of the total items showed a high index of discrimination, i.e. of more than +. 40, which all was significant discrimination ($P < 0.001$) excluding two items.

2) Factor analysis, which was oriented toward combining factors proper to theory, showed that the M.S.S. consisted of 6 factors and its total variance was 50.18%. The 6 factors were marital satisfaction (factor 1), marital social psychological companionship (factor 2), obstacles to marriage (factor 3), dissatisfaction of marital relationship (factor 4), attitude of the reasonable marital relationship (factor 5), and cognition of married life (factor 6),

3)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of the M.S.S. was 0.951 and the reliability of the total items after excluding two through item analysis 0.956 and 0.949 respectively, which showed a high internal consistency

4) The marital satisfaction examined by the M.S.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sex, education, income, the duration of marriage, the number of children but no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age, and family type.

From these results, it will be concluded that the M.S.S. is a reliable and valid psychological scale for examining marital satisfaction of Korean couples.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It can not be generalized to all Korean couples because the subjects was sampled from Seoul or satellite cities.

2) The factor analysis in this study was oriented toward combining factors proper to theory. However, it was very difficult to find out the factors because the components of the M.S.S. was more or less abstract.

Thus, from these results some suggestions follow for developing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proper to Korean couples systematically and scientifically.

1) The subjects must be sampled from urban as well as rural areas

2) Factor analysis in this study is oriented toward finding out factors of the M.S.S. Thus, it is needed to analyze the factor validity or construct validity by multitrait-multimethod of the scale with more theoretical conceptualization.

3)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marital satisfaction shows difference according to couples and psychological variables besides objective demographic variables.

4) More research is needed before the M.S.S. can be adapted into a turely useful marital satisfaction scale for Korea.

I. 序 論

1. 問題의 提起

結婚滿足度の 研究는 測定上의 問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研究가 行해지고 있다(Spanier & Cole, 1974; Hicks & Platt, 1970; Adams, 1980). 家族關係에 관한 여러 研究中에서도 夫婦의 結婚滿足의 程度를 살펴 보는 것은 그 社會의 成員들이 얼마나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지를 알 수 있는 指標가 되며, 그 社會의 安定性 程度를 짐작할 수 있는 尺度가 된다(김혜선, 1982). 그러므로, 結婚滿足度を 研究하는 것은 대단히 큰 意味를 지닌다.

과거 傳統社會에서의 擴大家族은 封建社會의 特征과 家族制度 자체의 특수성 때문에 대체로 安定狀態를 유지해 왔다(한남제, 1984). 즉, 家族員들 間에 相互報償되고 感情的으로 補完되는 作用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夫婦의 愛情을 基盤으로 하는 現代家族構造에서는 結婚生活의 安定은 주로 두사람의 感情 調節가 人格의 融合에 의존하게 되고, 한 家族의 永久性도 전적으로 夫婦關係가 계속되느냐 끊어지느냐에 따라 좌우된다(이효재, 1976). 그러므로 安定된 가정을 꾸미게 되는 幸福한 夫婦關係는 오직 夫婦關係에 관한 올바른 知識과 價値觀 및 意識의인 노력여하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를 잘 實行하지 못할 때는 分難, 別居, 難婚 등의 問題를 가져오게 되며(유영주, 1984), 실제로 서구의 경우 家族은 서서히 해체의 징후를 나타내고 있고 不幸한 家族生活을 하는 사람들과 解體된 家族은 증가일로에 있다(이동원, 1970).

이와같이, 産業社會에서 대두되는 諸重의 家族問題 특히 夫婦問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問題에 대한 科學的 研究가 선행되어야 하며, 科學적 研究를 하기 위해서는 家族現象을 比較적 體系的으로 測定할 수 있는 道具가 필요하다.

外國의 경우는 한 家族의 夫婦가 어느 程度로 그들의 結婚生活에 滿足하고 있는 가를 측정할 수 있는 標準化된 測定道具가 있어서, 한 社會安定程度의 指標가 되는 家庭의 夫婦結婚滿足度を 측정하고, 나아가 結婚의 위기를 맞고 있는 夫婦들을 치료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같이 夫婦의 結婚滿足度を 信賴性이고 妥當性있게 측정할 수 있는 道具의 製作 및 이에 대한 研究

의 必要性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夫婦의 結婚滿足度を 측정할 수 있는 道具가 거의 全無하다. 그러므로, 外國의 尺度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구체적인 문항을 구성하여 結婚滿足度を 측정하였다. 이렇게 外國의 尺度를 번역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나름대로의 信賴度, 妥當度 檢證을 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주의는 미비하였다.

그러므로, 本 研究는 Roach et al의 Marital Satisfaction Scale을 우리나라의 文化圈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한 妥當化 研究를 통하여 우리나라 夫婦의 結婚滿足度 尺度를 製作하는데 궁극적 目標을 둔다. 나아가 結婚滿足度 尺度를 製作·開發함으로써 夫婦問題의 一面을 科學的, 體系的으로 研究할 수 있으며, 科學的 研究를 통하여 현재의 家族問題를 발견·진단하여 現代家族의 위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本 結婚滿足度 尺度의 妥當化 研究는 家族問題를 豫防 및 解決한다는 점에 크나큰 意義를 지닌다.

2. 研究目的

本 研究는 우리나라의 표준화된 結婚滿足度 尺度를 제작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夫婦의 結婚滿足度を 측정하는데 있어서 効率的인 心理道具라고 간주되는 Roach의 結婚滿足度尺度(Marital Satisfaction Scale: MSS)가 우리나라 文化圈에서 夫婦의 結婚滿足度を 측정하는데 적합한지에 대한 妥當化 研究를 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이상의 研究目的을 가지고 本 研究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研究問題는 다음과 같다.

- 1) MSS를 구성하고 있는 각 문항들은 높은 변별지수를 나타내는가?
- 2) MSS가 우리나라 夫婦의 結婚滿足度を 측정하는데 있어서 信賴性있는 尺度인가?
- 3) MSS의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지 않고서도 MSS를 짧은 형태로 재형성하는 것이 가능한가?
- 4) MSS는 어떠한 要因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5) MSS를 基準자료로 이용한 結婚滿足度는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II. 理論的 背景 및 先行研究의 考察

1. 結婚滿足度 概念

結婚滿足度란 “結婚生活 전반에 대한 夫婦의 幸福과

滿足의 主觀的 感情이며 일종의 態度"라고 Hawkins & James (1968)는 정의하였으며, Lewis & Spanier (1979)는 "한사람이 가지는 結婚에 대한 期待와 그가 실제로 받는 報償의 一致 程度"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Burgess & Locke (1945)는 "한 개인이 그들 結婚生活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滿足하는가에서 부터 不滿足하는가에 이르는 연속선상의 態度"라고 하였으며, Lenthall (1977)은 "개인의 期待와 結婚의 結果 사이에 比較"라고 하였다. 한편, 김명자 (1977)는 "結婚生活의 實際와 期待間의 一致에서 오는 개인의 觀點에 따른 主觀的 程度"라 하였다.

本 研究에서 사용한 Roach의 MSS에서의 結婚滿足度 概念은 "주어진 시점에서 자기 자신의 結婚生活에 대해 時間的 次元에 따라 認識(perception)하는 것으로 얼마 만큼 좋아하고 싫어하는가 하는 選好(favorability)의 態度"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滿足이란 특별히 의미있는 生活經驗과 關聯하여 장기간에 걸쳐서 변화할 수 있는 態度로써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結婚에 대한 態度는 각 個人의 結婚狀態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個人에게 있어서 변화할 수 있는 認識을 말한다 (Roach, Frazier & Bowden, 1981).

2. 結婚滿足度 尺度

家族關係를 研究하는 많은 研究者(Straus, 1969; Cromwell, Olson & Fournier, 1976; Frazier, 1976; Bowden, 1977)들은 結婚滿足度を 測定할 수 있는 標準화된 道具가 부족하고, 信賴性있고 妥當한 道具의 開發이 지체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현재 結婚이나 家族相談 분야에서 직면하는 가장 중요한 問題는 적절한 測定道具의 利用이라 하겠다 (Bowden, 1977).

Straus는 1935년부터 1965년에 이르는 時期에 開發된 家族과 關聯된 測定道具를 탐색한 결과, 319개 중 39개만이 結婚·家族相談에 이용되었는데, 그 중 14개만이 信賴度·妥當度가 測定되었으며, 개념적으로 結婚 滿足, 結婚成功, 結婚幸福, 結婚適應에 關聯된 것은 Bernard (1933)의 The Success in Marriage Instrument, Terman (1938)의 The Marital Happiness Index, Bowerman (1953)의 The Bowerman Marital Adjustment Scales, Locke-Wallace (1959)의 The Locke-Wallace Marital Adjustment Test 등이라고 밝혔다.

以上的 1970년대 以前의 尺度에 있어서는 대체로 Locke & Wallace와 Terman의 Scale이 널리 사용

되고 있으며, 1970년대 以後에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尺度들이 開發되었다. 즉, Spanier (1976)의 Dyadic Adjustment Scale은 結婚滿足度を 結婚適應을 測定하는 여러 下部尺度(sub-scale)의 하나로써 구성하고 있는데, 여기서 Spanier가 추출한 要因은 Locke-Wallace Scale보다 그 概念이 명료하며, 주로 結婚適應 差異의 정도나 빈도를 추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 Synder (1979)의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는 11개의 下部尺度로 구성된 多元的 測定道具로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왜곡된 반응을 하는 社會的 理想(social desirability)을 고려함으로써 以前 尺度들의 短點을 보완하였다. 그러나, 몇몇 항목들이 다분히 行動의 形態와 事件의 回想, 史實性을 내포하고 있어 態度를 추정하는데 필요한 見解(opinion)나 心象(projection) 요인을 포함하지 않는 점은 이 척도의 단점이 된다.

以上에서 보는 바와 같이 美國의 경우는 무수히 많은 結婚滿足度 尺度가 제작·開發되었고 그중에 다수가 信賴度·妥當度 研究가 이루어져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체로 外國의 結婚滿足度 尺度를 번역·수정·선택하여 사용하거나 (김명자, 1977; 이옥진, 1982; 김정산, 1983; 금혜선, 1981; 김은숙, 1982; 최규연, 1984), 結婚生活에 대한 구체적 영역의 滿足 程度를 묻는 問項을 구성하여 (유영주, 1979; 이정연, 1981) 結婚滿足度を 測定하였다.

3 結婚滿足度尺度(MSS)의 개관

本 研究에서 MSS는 夫婦의 結婚滿足度を 측정하기 위해 Roach (1975)가 고안한 Marital Satisfaction Scale을 지칭한다.

MSS는 結婚滿足度の 표준화 제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고안되었다.

1) 結婚滿足度を 態度로써 보았기 때문에 Likert-type의 態度尺度로 구성하였으며, 測定の 信賴度を 증가시키고 좋은 문항을 변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問項의 數를 많이 넣었다.

2) 종래의 結婚滿足度 檢査가 行動의 頻度나 量을 추정하고 과거의 일을 기억해 내는 史實的 回考의 問項을 포함한 반면에 이러한 認知的이거나 回考的인 問項은 피하면서 自身の 結婚에 대한 態度를 다루려고 하였다.

3) 自己報告式(self-report) 道具들이 社會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自身の 結婚을 좋게 보이려고 하는 왜곡된 반응을 하는 social desirability 나 marital conventionalization 을 내포한 問項은 가능한 한 피하였다.

4) 單一問項形態 (single-item style) 을 지니며 점수체계가 간단한 尺度로 구성하였다.

結婚生活의 여러 측면에 있어서의 만족을 측정하는 MSS 의 問項內容은 夫婦關係의 문헌과 夫婦治療에 있어서의 전문가의 經驗, Marital Enhance Workshops 을 기초로 구성되었다. 問項의 應答範疇는 5點 Likert 尺度로써 自身の 結婚生活을 좋아하는 태도의 긍정적인 問項과 싫어하는 태도의 부정적인 問項은 거의 비슷한 비율로 구성되었다.

한편, MSS 의 Pilot Study 결과, 각 問項들은 전체 점수와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0.982 의 매우 높은 내적 일치신뢰도를 나타냈고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尺度로 나타났다.

4. 結婚滿足度尺度 (MSS) 의 妥當化 檢證節次

MSS 는 結婚滿足度에 관한 이론적 연구나 Marital Therapy, Marital Communication Workshop 등의 임상현장에서 중재 (intervention) 도구로써 이용되고 있다. 여러 結婚滿足度 道具中에서도 가장 활발히 妥當化研究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MSS 의 妥當化 검증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razier (1976) 는 다른 尺度를 준거로 하고 MSS 에 대한 공인타당도 (concurrent validity) 와 MSS 구조에 대한 구인타당도 (construct validity) 研究를 하였다. 연구결과, 검사중점과의 相關을 근거로 하는 문항변별도 (item discrimination) 는 0.001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Cronbach's α 계수로 산출된 내적일치신뢰도도 0.969 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였고, MSS 의 要因分析結果는 고유치가 1.0 이상인 要因이 14개로 36%의 설명변량을 지니는 單一要因이 의미있게 나타났다.

Bowden (1977) 은 MSS 의 공인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結婚生活에 滿足한 집단과 不滿足한 집단을 그 준거로 삼은 결과, 두 집단간의 t 검증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t = 112.204, df = 58, p < .0001$). MSS 의 변별타당도 (discriminant validity) 를 측정하기 위해 산출한 Marriage Problem Checklist (MPC) 점수와와

상관계수는 $-.73$ 으로 負의인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자신의 結婚生活에 대해 滿足한 夫婦일 수록 問題가 적고 不滿足한 夫婦일수록 問題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Bowden은 문항분석과정에서 문항변별도가 낮은 문항들을 제외시켜 48문항의 짧은 형태로 尺度를 재구성하였다.

Thompson (1978) 은 MSS 를 반복측정하여 Pretest 와 posttest 간의 t 검증 결과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으나 ($t = -2.86, df = 17, p < .01$), posttest와 post-posttest 의 측정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밝혔다 ($t = .76, df = 17, n.s.$). 이와같은 결과는 MSS 가 비교적 짧은 결혼준비기간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態度의 變化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MSS 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妥當化研究가 이루어져 왔는데, 각 研究結果 MSS 가 結婚滿足度を 測定하는 심리도구로서 信賴性있고 妥當한 道具임을 밝혔다.

III. 研究 方法

1. 研究對象

本 研究은 서울시와 위성도시에 거주한 結婚한 男·女를 對象으로 하였는데, 이들은 각 유치원,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학부모로서 8개학교에서 표집되었다.

調査對象者의 일반적 성격은 총 420名으로 女子가 54.8% (230名), 男子가 45.2% (190名) 으로 女子가 다소 많으며, 年齡은 30~40代가 지배적 (81.1%) 이며, 教育水準은 高率以上이 가장 많은 비율 (84.5%) 을 차지하고 있고, 結婚形態는 중매결혼이 36.9%로 가장 많았다. 子女의 數는 3~4名이 47.9%로 가장 많았고, 結婚期間은 14~19年된 사람들이 가장 많으며 (32.4%), 家族形態는 夫婦家族이 74%로 역시 가장 많았고, 收入은 3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이 전체의 78.8%를 차지하였다.

2. 道具

測定道具는 Roach (1975) 의 Marital Satisfaction Scale (MSS) 로서 총 7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Bowden (1977) 의 妥當化 研究를 통해 48문항으로 재구성된 척도를 이용하였다. MSS 는 構造化된 質問形式의 單一文章으로 구성된 態度尺度로서 25개 문항은 긍정적으로, 23개 문항은 부정적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각 개인의 結婚滿足度 총점수의 가능한 범위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표 1. MSS의 문항내용과 변별

문항내용	변별지수	문항내용	변별지수
1. 우리의 결혼생활에 있어서 남편(부인)이 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3857	25. 결혼생활을 통하여 내 성격은 많이 억눌려져 왔다.	.4199
2. 남편(부인)은 무슨 일이든지 그가 할 수가 있다면, 나를 위하여 편하게 해주려 한다.	.6200	26. 나의 결혼생활의 미래는 희망적이다.	.6597
3. 나는 결혼생활에 대한 근심, 걱정이 많다.	.5282	27. 나는 남편(부인)에 대하여 진실로 관심을 갖고 있다.	.5317
4. 만약, 내가 다시 결혼한다면, 지금의 남편(부인)과 같은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6362	28. 나는(남편)과 사이가 좋다.	.7235
5. 나는 우리 남편(부인)을 항상 신뢰할 수 있다.	.5997	*29. 나는 남편(부인)과 이혼이라도 하여 헤어질까봐 두렵다.	-.0642
6.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아더라면, 나의 인생은 매우 공헌했을 것이다.	.3968	30. 남편(부인)은 나의 자유시간을 빼앗는 등의 불편한 요구를 한다.	.4723
7. 나의 결혼생활은 나에게 너무 구속적이다.	.4745	31. 남편(부인)은 나를 대하는데 있어서 합당하지 못한다.	.5890
8. 나의 결혼생활이 따분하다고 느낀다.	.6175	32. 나의 결혼생활은 나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	.5295
9. 남편(부인)과의 결혼생활이 어떠한가를 알고 있다.	.3512	33. 남편(부인)은 우리의 관계를 보다 좋게 하려 애쓴다.	.5975
10. 결혼생활은 나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5595	34. 결혼생활에 있어서 남편(부인)과 취미가 다르기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다.	.6239
11. 나는 결혼생활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화가나고 짜증스럽다.	.6614	35. 우리 부부의 애정표현은 서로 마음에 든다.	.6185
12. 나는 결혼생활을 영위해 나갈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3587	36. 불행한 성관계는 나의 결혼생활의 결점이다.	.4378
13. 지금의 결혼생활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5289	37. 남편(부인)과 나는 어떤 행동이 옳바르고 적절한지에 대해 서로 의견이 일치한다.	.6032
14. 세월이 지나면 나의 결혼생활에 훨씬 더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5972	38. 남편(부인)과 나는 같은 인생철학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3090
15. 나는 결혼생활을 잘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진저리가 난다.	.6841	39. 남편(부인)과 나는 서로 좋아하는 몇가지 취미생활을 함께 즐긴다.	.4266
16. 나는 결혼생활이 생각했던 것 만큼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6246	40. 나는 가끔 지금의 남편(부인)과 결혼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랄 때가 있다.	.6076
17. 나의 결혼생활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나 자신에게 훨씬 진정한 만족감을 준다.	.6405	41. 나의 지금의 결혼생활은 확실히 불행하다.	.6935
18. 결혼생활은 해가 갈수록 어렵게 느껴진다.	.5521	42. 나는 남편(부인)과 가까운 마음으로 성관계를 가지기를 원한다.	.4675
19. 남편(부인)은 나를 매우 혼란스럽게 하고 신경질나게 만든다.	.6991	43. 남편(부인)은 나를 별로 존중하지 않는다.	.6820
20. 남편(부인)은 나의 의견을 표현할 충분한 기회를 준다.	.5767	44. 나는 남편(부인)을 신뢰하기가 어렵다.	.6883
21. 지금까지의 나의 결혼생활은 성공적이었다.	.7000	45. 남편(부인)은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바를 대부분 알아 차린다.	.5148
22. 남편(부인)은 나를 자신과 동등하게 대해 준다.	.5128	46. 남편(부인)은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6111
*23. 인생을 가치있고 흥미있게 해주는 다른 것을 위해서 결혼생활 이외의 것도 추구해야 한다.	-.0355	47. 나는 자주 남편(부인)과 대화나누기를 즐긴다.	.6320
24. 남편(부인)은 내가 최선을 다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준다.	.6955	48. 나는 확실히 나의 결혼생활에 만족한다.	.7327

* 변별도가 낮아 제외된 문항

48 점 ~ 240 점이다.

3. 節次

本 研究의 예비조사는 MSS 의 적용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번역하여 실시되었는데, 본 질문지의 신뢰도를 계산하고 이해가 어렵거나 의미가 통하지 않는 문항은 수정하여 본조사용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본조사는 1985년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각 유치원,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對象을 표집하기 위해 年齡과 사회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유의적으로 각 학교를 선정하였다.

총 600부 배부한 질문지中 420부만이 本 研究의 分析에 사용되었다.

4. 資料分析

1) 尺度의 문항양호도를 分析하기 위해 각 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상대도수분포와 문항변별도를 산출하였는데, 問項辨別度는 각 문항점수와 전체총점과의 상관계수로 측정하였다.

2) 尺度의 信賴度分析은 尺度問項의 동질성여부를 測定하는 내적일치도 (internal consistency) 方法으로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3) 尺度의 構因妥當度는 要因分析 方法을 적용하였는데 각 文項間의 상관계수행렬을 기초로 주성분분석방법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과 Varimax 方法으로 要因을 추출하였다.

4) MSS를 규준자료로 이용한 結婚満足度の 배경변인에 따른 差異는 一元變量分析을 한 후, DUNCAN의 New Multiple Range Test 로 사후검증을 하였다.

以上の 統計는 SPSS 와 SAS Program 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IV. 結果 및 論議

1. 問項 分析

MSS 의 문항양호도를 分析하기 위해 각 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상대도수분포를 산출한 결과, 평균치가 최대 5점중 2점이하에 해당되는 問項은 거의 없으므로 이 과정을 통해 48問項은 전부 채택되었다.

또한, 문항변별도를 측정하기 위한 총 48 문항에 대한 변별지수 (Index of discrimination) 는 부적인 상관계수를 나타내는 23, 29번 문항을 제외하고는 전체 문항이 0.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Ahmann & Glock

(1967) 는 +.40 이상의 변별지수를 가지는 문항은 아주 양호하고, +.40 ~ +.20의 변별지수를 나타내는 문항도 만족스러우며, +.20 ~ .00의 변별지수를 갖는 문항은 불량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므로 +.40 이상의 변별지수를 나타내는 문항은 41개로 전체문항의 85.4%가 아주 좋은 문항이 될 수 있는 기준치를 충족시켰다고 볼 수 있다. 각 문항내용과 변별지수는 表 1과 같다.

문항분석에서 제외된 23번 문항은 번역과정중 그 의미가 잘못 전달되어 변별도가 낮게 나왔으며, 29번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夫婦들은 자신의 結婚生活이 不満足하다고 하여도 離婚까지 행할 수는 없다고 하는 傳統的 의식이 지배하고 있어 낮은 상관을 나타낸 것으로 思料된다.

2. 要因 分析

MSS 의 問項分析을 통과한 46問項에 대해 要因分析을 적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結婚満足度 定義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이론적으로 妥當한 要因을 경험적으로 탐색하기 위함이다.

2) 結婚満足度 尺度의 각 항목이 적절한 要因에 높게 부하되는지, 또한 각 항목이 信賴度나 妥當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제거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3) 각 下部要因에 포함되는 항목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여 각 변수들간의 構造的 關係를 설명하기 위함이다.

MSS 의 각 문항들이 어떠한 要因으로 구성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각 문항들간의 상호상관계수를 測定한 결과, 대체로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지만 높은 상관을 보이지는 않았다.

MSS 문항간의 상관계수를 기초로 주성분분석방법을 적용하였는데, 각 要因의 고유치 (eigenvalue) 가 1.00 이상인 要因은 6개로 추출되었다. 이 6개 要因이 설명할수 있는 변량은 26.138으로 이는 전체변량의 56.18%에 해당되며, 각 要因에 대한 고유치는 要因 1이 16.23, 要因 2가 1.99, 要因 3이 1.78, 要因 4가 1.56, 要因 5가 1.27, 要因 6이 1.25로 전체적으로는 要因 1의 單一要因 (single factor) 로 구성되었다. 이것은 MSS 의 Pilot Study 와 그후의 타당화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結婚生活에 대한 選好의 態度" 라고 명명될 수 있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표 2. 하위요인의 문항내용과 요인 행렬표

문항 번호 및 내용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공유치
16. 기대한 결혼생활의 행복여부	.70						.65
17. 타생활과 결혼생활의 만족비교	.69						.66
21. 현재까지의 결혼생활 성공여부	.64						.58
32. 현 결혼생활이 결혼전 목표달성에 도움	.59						.58
48. 결혼생활의 만족	.51						.69
6. 결혼생활의 가치	.50						.39
14. 시간이 갈수록 더욱 결혼생활에 만족	.43						.57
26. 미래의 결혼생활이 희망적	.52						.63
24. 배우자의 격려		.45					.40
27. 배우자에 대한 관심도		.44					.66
28. 배우자와의 화목		.47					.54
33. 배우자와의 관계 개선 노력		.58					.53
35. 배우자와의 애정표현		.51					.54
37. 배우자와의 의견일치		.46					.52
39. 배우자와의 공동의 취미생활		.58					.50
45. 배우자간의 사고 인지의 여부		.60					.57
47. 배우자간의 의사소통		.62					.58
3. 결혼생활에 대한 근심, 걱정			.54				.46
4. 현 배우자의 재선택 여부			.47				.57
7. 결혼생활의 구속			.44				.64
8. 결혼생활의 지루함			.55				.58
10. 결혼생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58				.54
11. 결혼생활 수행의 짜증			.67				.65
15. 결혼생활 수행노력의 어려움			.50				.61
19. 배우자에 대한 불만			.49				.60
13. 현재 결혼생활 지속의 희망여부				.48			.51
34. 상이한 취미로 곤란				.46			.52
36. 불행한 상관계				.70			.58
40. 현 배우자와의 결혼후회				.50			.55
41. 현재 결혼생활이 불행				.65			.67
44. 배우자의 신뢰가 어려움				.47			.60
20. 배우자의 의사표현의 동등한 기회					.58		.58
22. 배우자간의 평등					.58		.60
30. 배우자의 불공평한 처사					.45		.54
31. 배우자의 불합당한 대우					.47		.60
1. 배우자의 자신에 대한 기대						.52	.43
9. 배우자와의 결혼생활 상태						.58	.55
12. 결혼생활 수행능력						.69	.66
고 유 치 (eigenvalue)	4.91	4.84	4.54	3.90	2.52	2.36	23.07
전체변량 (total variance, %)	10.67	10.52	9.87	8.48	5.48	5.13	50.15
공통변량 (common variance, %)	21.28	20.98	19.68	16.91	10.92	10.23	100.00

이와같이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에서 추출된 6개의 要因을 좀더 構造的으로 단순하고 概念上 해석이 가능한 형태로 공통요인을 변경시키기 위하여 Varimax 方法으로 회전시켰다. 그 결과, 회전전 要因 1에 집중되었던 변인이 분산되므로 각 要因別로 특징이 나타나게 되었다.

전체 변량은 각 要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67, 10.52, 9.87, 8.48, 5.48, 5.13으로 50.15%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6개의 要因을 가지고는 전체 변량의 50.15%만을 측정할 수 있으며 그밖의 47.85%는 오차 변량 (error variance)이나 특수 변량 (specific variance)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오택섭, 1984).

6개의 要因中에서 한 要因에서도 ± 4.0 이상의 요인 부하량을 가지지 못하는 18, 25, 38, 43번 問項은 제외시키고 (kimmel & van der veen), 42, 46, 2, 5번 問項도 內容上 각 要因에 적재된 다른 問項들과 공통성을 찾기 어려워 제외되었다. 여기서 요인 부하량이 낮아 제외된 問項의 內容은 結婚生活이 갈수록 어려워 진다는 것과 結婚生活을 통하여 성격이 많이 억눌려 왔고 배우자와 동등한 인생철학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과 배우자를 별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夫婦들이 結婚滿足에 있어서 동등한 인생철학을 가진다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누구나 結婚生活을 지속해 나갈수록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므로 낮은 상관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表 2는 MSS가 구성하고 있는 下位 要因의 問項 內容과 요인 부하량, 공유치, 고유치, 공통 변량, 전체 변량을 나타낸 것이다.

要因 1은 변량의 크기가 4.91이고 설명 변량은 10.67%로 이는 "結婚生活의 全般的 滿足"이라고 명명하였다.

要因 2가 갖는 변량의 크기는 4.84, 설명 변량은 10.52%로 이 要因은 "夫婦의 社會的 · 心理的 同僚感"을 나타내는 要因이라고 생각된다. 要因 3은 변량의 크기가 4.54, 설명 변량은 9.87%인데 이 要因은 "結婚生活의 隘路 要因"이라고 명명하였다. 要因 4의 변량 크기는 3.90, 설명 변량은 8.48%로 이 要因은 "夫婦關係의 不滿 要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要因 5의 변량 크기는 2.52, 설명 변량은 5.48%로 그 要因의 주요 내용으로 보아 "夫婦의 妥當한 態度"라고 명명하였다. 要因 6은 변량의 크기가 2.36, 설명 변량이 5.13%로, 구성 내용상 이는 "結婚生活에 대한 認知"

를 나타내는 要因이라고 생각된다.

3. 信賴度 分析

本 研究에서의 信賴度 測定은 檢査를 한번 施行하여 추정할 수 있고, 尺度 問項의 동질성 여부를 측정해 주는 內的一致度의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MSS의 전체 48問項에 대한 信賴度 α 계수는 0.951으로 나타났으며, MSS의 信賴度を 저하시키지 않고서도 MSS를 짧은 形態로 構成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問項 分析과 要因 分析過程을 거친 問項의 信賴度는 다음과 같다. 즉, 문항 분석과정을 거친 46問項 (23, 29번 제외)에 대한 信賴度는 0.956이며, 요인 분석과정을 거친 38문항 (2, 5, 18, 23, 25, 29, 38, 42, 43, 46번 제외)에 대한 信賴度는 0.949이다. 이상과같이 MSS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매우 높은 내적일치의 신뢰도를 나타내므로, MSS는 우리나라 夫婦의 結婚滿足度를 測定하는데 있어서 信賴性 있는 尺度라 하겠다.

4. 背景 變因에 따른 結婚滿足度の 變量 分析

MSS의 結婚滿足度 총점의 가능한 범위는 48~240점이었는데, 연구 결과 結婚滿足도가 가장 높은 사람은 236점, 가장 낮은 사람은 61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은 199.92, 표준 편차는 32.73으로 조사 대상은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었다.

요인 분석을 거친 MSS를 均衡 자료로 이용한 結婚滿足도가 性別, 年齡, 教育水準, 結婚期間, 收入, 子女數, 家族 形態의 배경 변인에 따라 어떠한 差異를 보이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一元 變量 分析 (one-way ANOVA)을 하였는데, 각 變因은 ANOVA의 假定 (assumption)을 모두 충족하였다. 本 研究에서 각 집단간의 差異를 알아 볼 수 있는 有意水準은 $\alpha = 0.05$ 로 정하였으며, 세 집단 이상인 경우, 유의한 차이가 어느 집단에서 연유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事後檢證 (post-hoc)은 Liberal Procedure인 Duncan의 New Multiple-Range Test (Huck, Cormier & Bounds, JR., 1974)를 사용하였다. 각 배경 변인에 따른 結婚滿足度の F검증 결과는 表 3과 같다. 性別에 따른 結婚滿足도는 남편들이 夫婦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영주 (1979), 이정연 (1982), 이옥진 (1982)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나, Frazier의 MSS를 이용한 結婚滿足度 연구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로, 가정 생활 밖의 직장 생활에서 자신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남편들에 비해 가정에만 얽매어 있는

표 3. 각 배경변인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F 검증

배경변인	결혼만족도		N (%)	평균	표준편차	유의도	DUNCAN'S*
	구	분					
성 별	남	자	174	184.3	26.21	F= 12.46 P<.005	A
	여	자	206	172.6	25.29		B
연 령	20 ~ 29 세		33	180.6	29.1	F= 1.42 N.S.	A
	30 ~ 39 세		123	181.3	27.2		A
	40 ~ 49 세		185	174.4	25.0		A
	50 ~ 59 세		39	181.8	24.4		A
결혼기간	1 ~ 7 년		80	180.6	30.1	F= 3.20 P<.05	A
	8 ~ 13 년		77	184.7	23.8		A
	14 ~ 19 년		124	178.3	22.9		A B
	20 년 이 상		99	170.1	27.1		B
교육수준	국 졸 이 하		7	178.8	29.2	F= 9.76 P<.0001	A B
	중 졸		51	160.7	23.9		B
	고 졸		161	174.9	24.8		A B
	대 졸 이 상		161	186.7	25.9		A
한달총수입	20 ~ 39 원		96	165.4	31.3	F= 11.37 P<.0001	B
	40 ~ 69 원		160	179.2	24.3		A
	70 ~ 150 원		124	185.8	21.6		A
자 녀 수	없	다	18	199.9	18.5	F= 2.99 P<.05	B
	1 ~ 2 명		166	176.7	28.1		B
	3 ~ 4 명		178	176.6	24.2		B
	5 명 이 상		18	180.7	26.6		A
가족형태	부 부 가 족		280	177.3	26.7	F= 0.45 N.S.	A
	직 계 가 족		69	181.3	24.9		A
	기 타		31	176.4	23.6		A

* 같은 문자로 표시된 집단간에는 차이가 없다.

부인들의 경우 結婚滿足度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年齡에 따른 結婚滿足度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오명숙(1978)의 研究와 一致하는 결과로, 年齡은 結婚滿足度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준다.

結婚期間에 따른 結婚滿足度는 유의한 수준에서 의미 있는 差異를 보였으며, DUNCAN의 NMRT 결과, 結婚滿足度는 8 ~ 13年, 20年以上의 結婚生活를 지속한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이는 결혼초 滿足도가 제일 높고, 첫아이 출생후 감소를 보

이다가 子女가 青年期에 도달하면 두번째 감소현상을 보이고(Rollins & Galligan, 1978), 父母의 役割이 夫婦에게서 떠나는 脫父母期에 結婚滿足度는 더욱 감소현상을 나타낸다는 研究와 一致한다고 하겠다.

여러 研究에서 教育水準과 結婚滿足도는 직접적으로 關聯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Bernard(1966)는 주부의 教育水準이 높을 수록 結婚滿足度가 증가하고 결혼의 安定性이 유지된다고 하였으며, Ferman(1988), 최신타(1973), 김명자(1977), 유영주(1979)도 주부의 教育水準이 높을 수록 부인·남편 모두 滿足度가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이와 같이, 본 研究의 결과도 教育水準에 따라 유의한 差異의 結婚滿足度を 나타냈는데, DUNCAN의 NMRT 결과, 중졸, 대졸이상의 집단에서 差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收入에 따른 結婚滿足도는 의미있는 差異를 나타냈는데, 이에 대한 DUNCAN의 NMRT 결과, 收入에 따른 結婚滿足도는 下집단과 中·上집단의 차이에 연유한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收入이 많을 수록 夫婦의 結婚滿足도가 높다고 하는 오명숙(1979), 김은주(1979), 이호재·이동원(1972)의 研究結果와 일치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Foa & Foa(1969)에 의하면, 한사람의 기대수준을 넘는 것이 보상으로 인한 滿足을 낳게 되므로, 만약 기대수준이 낮다면 조그만 양의 보상으로도 만족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低所得層이라 해서 반드시 滿足이 낮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收入이 結婚滿足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는 없으나, 結婚의 滿足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經濟的인 安定이 必要하다(김혜선, 1982), 그러므로, 이에 대한 심층연구가 必要하다고 하겠다.

結婚滿足도에 있어서 夫婦가 子女를 얼마나 많이 두 있는 가는 의미있는 差異를 나타냈다. 이는 Feldman(1965), Renne(1970)의 研究와 마찬가지로, 子女가 없는 夫婦가 子女가 있는 夫婦보다도 시간적으로 볼 때 좀더 대화할 시간이 많으며 서로를 더 가깝게 느끼고 그들의 결혼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결과는 子女가 없는 집단의 사례수가 적은데서 기인되거나, 혹은 의식적으로 子女를 가지지 않을 경우에 結婚滿足이 달라지는 등의 매개변수 작용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심층연구가 必要하다. 家族形態에 따른 結婚滿足도는 夫婦中心의 夫婦家族이거나 長男의 家族으로 代를 이어 나가는 直系家族을 막론하고 의미있는 差異를 보이지 않았다. 유영주(1979), 최재석(1983)은 家族形態에 따른 結婚滿足도는 家族의 크기가 클수록 結婚滿足은 감소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김명자(1977)는 結婚滿足은 家族形態와 무관하다고 한다. 이와같이 상반된 研究結果는 標集對象과 測定道具의 差異에서 發生되는 問題라고 생각된다.

V. 要約 및 結論

우리나라의 경우 結婚滿足度を 비교적 體系的으로 측정할 수 있는 道具가 거의 全無한 실정이므로, 본 研

究의 目的은 표준화된 結婚滿足度 尺度를 제작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Marital Satisfaction Scale (MSS)이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夫婦의 結婚滿足度を 測定하는데 적합한지에 대한 妥當化 研究를 하는 것이었다.

本 研究에서 以上の 目的을 가지고 分析된 研究結果는 다음과 같다.

1) 問項分析에서 전체 48問項中 두 問項을 제외하고는 0.001水準에서 유의한 변별도를 나타냈는데, 전체문항의 85.4%가 +.40 이상의 높은 변별지수를 나타냈다.

2) MSS를 이론적으로 妥當한 要因으로 묶기 위한 要因分析 結果, 총 50.18%의 설명력을 가지는 6개의 要因은 각각 要因1이 "結婚生活에 대한 전반적 滿足", 要因2가 "夫婦의 社會的·心理的 同僚感", 要因3이 "結婚生活의 애로요인", 要因4가 "夫婦關係의 不滿要因", 要因5가 "夫婦의 合當한 態度", 要因6이 "結婚生活에 대한 認知"라고 명명하였다.

3) MSS의 내적일치신뢰도 α 계수는 0.951이었고 問項分析과 要因分析過程을 거친 問項의 信賴度 α 계수는 각각 0.956, 0.949로써 매우 높은 내적일치도를 나타냈다.

4) MSS를 규준자료로 이용한 結婚滿足도는 性別, 教育水準, 結婚期間, 收入, 子女數의 變因에 따라서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지만 年齡, 家族形態에 따른 結婚滿足도는 의미있는 差異가 없었다.

以上の 結果로 MSS는 우리나라 夫婦의 結婚滿足度を 測定하는데 있어서 信賴性 있고 妥當한 効率的인 心理道具라고 結婚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結婚滿足度 尺度의 妥當度を 검증하기 위한 研究로써 本 研究가 갖는 制限點을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1) 本 研究의 對象은 서울시내와 위성도시의 夫婦를 對象으로 하였기에 韓國 全體夫婦를 代表하기는 어렵다.

2) 本 研究에서 要因分析은 理論的으로 妥當한 要因을 묶기 위한 것이었으나, MSS의 구성자체가 다소 추상적이므로 要因을 추출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結婚滿足度 研究의 體系的이고 科學的인 발전을 위한 研究로써 結婚滿足度 尺度·道具를 개발·표준화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提言을 하고자 한다.

- 1) 本研究의 對象을 도시뿐만 아니라 農村夫婦까지 확대·선정하여야 한다.
- 2) 本研究의 要因分析은 結婚滿足度尺度의 構成要因을 추출하려는 것이었으므로, 좀더 명료한 理論的 概念下에 尺度의 要因妥當度나 多特性 多方法 (multitrait-multimethod) 의 構成妥當度 研究를 行하여야 할 것이다.
- 3) 背景變因에 따른 結婚滿足度는 남편, 부인을 각각 구별하여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研究와 客觀的인 人口統計學的 變因外에 心理的인 變因에 따른 結婚滿足度의 심층연구가 必要하다.
- 4) 本研究는 結婚滿足度 尺度를 제작하기 위한 豫備的 段階로써 MSS 에 대한 妥當化 研究를 行하였는바, 이에 대한 앞으로의 많은 研究가 더욱 要請된다.

참 고 문 헌

- 1) 김혜선 : 결혼만족도에 따른 Personality 특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1981
- 2) 김명자 : 주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77
- 3) 김은숙 :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의사소통과 결혼만족 연구. 상명여대 석사논문, 1982
- 4) 김정옥 : 한국도시가족의 부부관계. 부산여대 논문집, 1980, 8, 293-305
- 5) 김쟁산·진영수 : 부부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대가정대 연구보고, 1983 12, 89-101
- 6) 김혜선 : 결혼만족도에 관한 문헌적 고찰, 이화여대 석사논문, 1978
- 7) 오명숙 : 결혼 적응도에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78
- 8) 오택섭 : 사회과학 데이터 분석법. 서울 : 나남출판사, 1984
- 9) 유영주 : 신가족관계학. 서울 : 교문사, 1984
- 10) 유영주 : 한국도시가족의 부부간의 만족도 연구, 서울대 가정대 논문집, 1979, 2, 1-13
- 11) 유영주 외 2인 : 가정학연구의 최신정보 II - 아동학·가족관계 - 서울 : 신광출판사, 1984
- 12) 유은희 : 한국도시부인의 결혼적응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74

- 13) 윤진 : 「노인생활만족도척도」 제작연구. 한국심리학회 초록집, 1980, 26-30
- 14) 이동원 : 미래가족. 한국사회학, 1970, 5, 31-40
- 15) 이옥진 :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관련된 가정환경변인에 관한 일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2
- 16) 이정연 : 남편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2
- 17) 이종성 : 측정이론의 기초.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1985
- 18) 이효재 : 가족과 사회. 서울 : 진명출판사, 1984
- 19) 최규련 :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984, 22권 2호, 91-102
- 20) 최신타 : 도시부부의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II.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1978 22, 87-119
- 21) 최재석 : 한국가족연구. 서울 : 일지사, 1983
- 22) 한남재 : 한국도시가족연구. 서울 : 일지사, 1984
- 23) Adams BN : *The family : a sociological interpretation (3rd ed)*. Chicago : Rand McNally Collega Pub, Co. 1980
- 24) Ahmann JS & Glock MD : *Evaluating pupil growth : principles of tests and measurement*. Boston : Allyn and Bacon, Inc. 1967
- 25) Anastasi A : *Psychological testing (4th. ed)*.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76
- 26) Barling I : *Effects of husbands, work experiences on wives marital satisfaction*.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984 124, 219-225
- 27) Bernard J : *Marital stability and patterns of status variab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66 28, 421-439
- 28) Bowden SR : *An assessment of the validity of the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xas A & M University 1977
- 29) Bowen GS & Orthner DK : *Sex-role congruency and marital qua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83 45, 223-229
- 30) Burr WR, Hill R, Nye FI & Reiss IL :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New York : The Free Press, 1979
- 31) Carmines EG & Zeller RA : *Reliability and*

- validity assessment. BH : Sage Publications, Inc 1981
- 32) Elizabeth BH : *Effects of empty nest transition on self-report of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78 40, 549-553
- 33) Filsinger EE : *Social competence and marital adjustment.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980 9, 158-163
- 34) Frazier LP : *An evaluation of the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xas A & M University*, 1976
- 35) Goode WJ : *The family. New Jersey : Printice - Hall*, 1964
- 36) Hasen GL : *Marital adjustment and conventionalization : A reexamin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81 43, 855-863
- 37) Hasen JE & Schuldt WJ : *Marital self-disclosure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84 46, 923-926
- 38) Hawkins JL : *Association between companionship, hosti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66 30, 647-650
- 39) Hik MW & Platt M : *Marital happiness and stability : A review of research in the six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70 32, 553-564
- 40) Huck SW Cormier WH & Bounds JR WG : *Reading statistics and research. New York : Harper & Rows, Publishers, Inc. 1974*
- 41) Jeries N : *Marital satisfaction as perceived by wiv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979 7, 226-233
- 42) Kim Jae-On & Muller CW : *Factor analysis : Statistical methods and practical issues. BH : Sage Publication, Inc. 1980*
- 43) Kim Jae-On & Muller CW : *Introduction to factor analysis BH : Sage Publications, Inc. 1982*
- 44) Kimmel D & Van Der Veen F : *Factors of marital adjustment in Locks marital adjustment tes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74 36, 57-63
- 45) Kirkpatrick C : *The family as process and institution. New York : The Ronald Press Co. 1963*
- 46) Lee GR : *Age at marriage and marital satisfaction : A multivariate analysis with implications for marital 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77 39, 493-504
- 47) Lenthall G : *Marital satisfaction and marital 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Counseling*, 1977 3, 25-32
- 48) Minium EW : *Statistical reasoning in psychology and education (2nd. ed). John Wiley & Sons, Inc. 1970*
- 49) Nie NH, Hull CH, Jenkins JG, Steinbrenner, K & Bent DH :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2nd. ed). New York : McGraw-Hill. 1975*
- 50) Orden SR & Bradburn NM : *Dimensions of marriage happiness.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968 73, 715-732
- 51) Renne KS : *Correlates of dissatisfaction in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70 32, 54-67
- 52) Roach AG, Frazier LP & Bowden SR :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81 43, 537-546
- 53) Rollins BC & Cannon EL :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74 36, 271-282
- 54) SAS Institute Inc : *SAS User's guide : Statistics. Cary, NC : SAS Institute Inc. 1982*
- 55) Spanier GB : *Measuring dyadic adjustment : New scaling for assessment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ournal of Marriage*

- ge and the Family*, 1976 38, 15-28
- 56) Spanier GB & Lewis RA : *Marital quality : A review of the seven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80 42, 96-110
- 57) Synder DK :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79 41, 813-823
- 58) Terman LM : *Psychological factors in marital happiness. New York : McGraw-Hill. 1938*
-